



안녕하세요. 저는 강순희(Sunhe Kang)수녀입니다. 제가 사랑의 씨튼 수녀회 수녀가 된 것은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저는 신앙심이 깊으셨던 부모님과 함께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와 나눔의 생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복음 중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29-37)는 제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하는지 가르쳐주었고, 저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랑의 삶,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졸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성당에서 전례봉사,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본당신부님과 의 면담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수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며 수녀님들과의 만남을

권유하셨을 때, 후보에 나온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피정 안내를 보고 성소 피정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소 피정을 통해서 저의 성소의 동기를 정화시켜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수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성소자들과 함께 여름 공소 봉사를 다녀온 후 성소 담당 수녀님이 저에게 수도회에 입회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을 때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며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였습니다.



1985년 입회 후 성녀

엘리사벳 씨튼과 빈첸시오 영성에 대해 배우면서 하느님의 섭리가 저를 빈첸시안 영성을 사는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양한 사도직 안에서 제가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제 눈과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본당, 피정 집, 학교,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2014년 관구간 교류 프로그램 덕분에 기도 파트너 Karen Cunningham 수녀님을 소개받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서 어떤 수녀님일까 궁금했습니다. 소개를 받고 Karen 수녀님께 이메일로 연락을 했고, 수녀님은 곧 답장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소개를 하였고, 서로 파트너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주 소식을 전할 수 없었지만 서로 기도 안에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탄과 부활, 마더 씨튼 대축일에 서로 축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총원에 계신 Carole 수녀님께 저의 기도파트너인 Karen 을 본적이 없다고 했더니 수녀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메일과 사진으로만 보던 Karen 수녀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모원에서 있었던 미국관구 관구장과 관구이사 이취임식에 많은 수녀님들이 오셨는데, 피츠버그에 사는 Karen 수녀님도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모원에 오셨습니다. 수녀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니 매우 기뻐합니다. 그날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수녀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녀님은 눈이 건강해지도록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수녀님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은 만남에 아쉬워하면서 헤어졌는데, Karen 수녀님이 제가 한국으로 가기 며칠 전에 같은 공동체에 사시는 Geraldine Frances Marr 수녀님과 함께 저를 만나러 다시 모원을 방문해주셔서 또 한 번 기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마더 씨튼의 영성과 빈첸시안 영성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선한 마음으로 기쁘게 수도생활을 하는 수녀님과 함께 한 공동체 식구로 살아가고 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두 관구의 수녀님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마더 씨튼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간구해주시리라 믿습니다.



Hello! I'm Sr. Kang, Sun He. I think my life as a religious is God's Providence. I was baptized as an infant, and I learned God through daily prayers with my dear parents who had deep faith. I learned to live a life of prayer and sharing from them. In particular,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Luke 10, 29-37) in the gospel that I heard during Sunday School taught me how to live a Christian life, and also nurtured my desire to become a religious so that I can help people in need. When I graduated and went to work, I also served the church as a liturgist, choir member, and Sunday school teacher. One day I talked with the pastor, and he told me that the person who became a religious is the man or woman who received God's calling, and recommended me to meet Sisters to discern my vocation. Finding information of retreat hosted by SCSH in the church bulletin, I applied and went. Through the vocation retreats my intention of religious life was purified.

God made me realize that our intention of being religious is not to help the poor but to love God and do the things He wants us to do. After being with the other vocation candidates in the summer service program for a remote church, I was recommended to join our community by vocation director, and I entered accepting it as God's Call. Since entering our community in 1985, I have learned the spirituality of our founders, came to know God's providence led me to our Sisters living Vincentian spirituality, and I thanked God for calling me here. I do believe that the Lord is inviting me to serve the poor in various ministries. Sometimes my



closed eyes and heart made me fail to recognize Jesus amidst the people; however, God helped me to encounter Jesus in parishes, retreat houses, schools, and communities. I came to know Sr. Karen Cunningham through



interprovincial exchange program in 2014, and I wondered who she was. We communicated via emails, and got to know where we live and what we do. I am so grateful for knowing each other as prayer partners. We feel that we are very close and present to each other in prayers is spite of infrequent communications. We sent and received cards on Christmas, Easter, and the feast of Mother Seton. When I was in USA, Sr. Carole showed me a picture of Sr. Karen. After that I could meet Sr. Karen.



In June, 2016, many Sisters came to Caritas Christi to celebrate the installation of newly elected US leadership team. Sr. Karen who lives in Pittsburgh came, too. That was my first encounter with her. The memory of that day is still vivid in my heart. We spent a short, but tremendous joyful time on that day.

She asked me to pray for her eyes and I am always praying for her. Right before coming to Korea she came to see me at Caritas Christi with Sr. Geraldine Frances Marr, and I am so grateful to that. To live as one community and pray for each other while living our religious life with joy and serving those in need in the spirituality of Mother Seton and Vincent de Paul is such a great strength to me. Seeing that we, all the Sisters of two Provinces, pray, share love, and follow the way of faith, I believe Mother Seton is glad and is praying for all of us in the Heaven.